



김기성 토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조경기술사회는 1989년 9월 25일 조경기술사들이 모여 분회를 구성하여 조경기술사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조경기술사의 신기술 및 기술보급을 통하여 국토환경의 보전, 공원녹지, 공지확충계획, 신도시의 개발과 기존도시의 정비 등에 경관계획, 조성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한국기술사회 조경기술사회를 탐방하여 김기성 회장을 만나보았다.

- 일 시: 2008년 12월 19일 10:00
- 장 소: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사장실
- 참석자: 김기성 회장, 한국기술사회 김윤제 홍보위원, 구수연 사원

■ 조경기술사들의 주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오.

조경기술사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공과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로서의 역할과 계획과 설계를 수행하는 계획가 혹은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경관(Landscape)을 조성(Architecture)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합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계획과 정책 등에 대한 국토경관계획, 공원의 지정 및 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 등의 도입계획, 이들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조성, 국민의 주택 공급 위한 택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의 공원, 녹지체계 구성, 신도시계획 및 기존 도시의 정비 시

공원, 녹지체계 구성 및 조성, 도시의 경관 조성, 관광단지 계획, 조성, 스포츠콤플렉스 단지 조성 등과 이밖에 모든 개발 사업에 조경인 들이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연환경경관을 보존과 재생하는 자연형 수(水)환경 조성, 자연녹지 조성 및 보존, 생태공간 보존 및 재생 등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경은 우리 생활 속의 마치 필요한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창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Well-being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쉽겠지요. 삶의 질을 높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형의 것으로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이끌어냅니다.

■ 조경기술사회의 주요연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초대회장 김윤제, 권오준, 유익열, 윤성수 고문에 이어 99년도 이래로 제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현재까지 조경기술사로 배출된 인원은 250명에 달하고 있지만 한국 기술사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은 140여명으로 반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회원자격을 지속하고 있는 회원은 70여명에 불과합니다.

조경기술사회는 1980년도에 한국조경사회의 출발로부터 시작되어 왔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조경사회의 회원자격 성격이 조경기술인 모두에게 개방이 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원화된 체계로 진행되어 오다가 2007년 기술사법 개정으로 재정비 조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회원 수는 12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지속회원이 미약한 면이 있어서, 내년도의 목표는 150명의 지속 회원확보가 목표입니다. 기술사 권익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가려는 노력이 곧 회원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경기술사회의 주요활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활동사항은 신입회원의 환영회,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회원들 상호간의 정보제공 등의 소극적인 활동을 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경기술사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세계적 추세인 정책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요과제의 연구·실행을 위하여 연구 분과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또한 회원 모두를 위한 계속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한국설계인증제도를 학계와 인접 분야인 도시계획분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조경학회와도 공동추진 중에 있습니다.

■ 조경기술사회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변화되는 환경의 중요 추세에 맞추어 나아가야 합니다. 환경조성분야가 장래에 유망분야라는 것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근 타 분야도 이런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경기술사들은 환경을 인공적으로 재생하고 보존하는 기본적인 이론적 바탕에 공학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 이 부

분의 중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경분야의 기술이 외국에 비하여 상위에 있으므로 세계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이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조경기술사회를 이끌어나가는데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기술사회의 공통사항이기도 한 현행의 기술사들에게 제도적으로 위상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현행 기술사에 대한 법률이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진흥법, 건설 산업 기본법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한국기술사회의 회원으로의 입회를 원하는 조경기술사의 회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사법, 변호사법 등 타 분야의 법률처럼 기술사법에서 기술사를 관리하고 운영한다면 이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조경기술사회에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원에 대한 이익증대와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회원의 권익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회원 수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향후 기술사시험 출제위원을 기술사회의 회원들이 위원을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입니다.

■ 끝으로 조경기술사회 회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조언해 주십시오.

특별히 당부할 것은 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원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주변에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